

# 콜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7. 3.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8
IV. 국제신인도 .....	10
V. 종합 의견 .....	12

## I. 일반개황

면적	1,139천 km <sup>2</sup>	G D P	2,741억 달러 (2016년)
인구	48.8백만 명 (2016년)	1 인 당 G D P	5,623 달러 (2016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Peso (Ps)
대외정책	경제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3,055 (2016년)

- 콜롬비아는 남미대륙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, 베네수엘라, 브라질, 페루, 에콰도르,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.
-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5배 수준이며, 2016년 기준 인구는 48.8백만 명으로 중남미 제3위, GDP 규모는 2,741억 달러로 중남미 제5위 규모임.
- 콜롬비아는 원유, 석탄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,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.
-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산토스 (Santos) 대통령은 연정을 통한 의회 다수석 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중임.
- 산토스 대통령은 2016년 최대 반군단체인 좌익무장혁명군(FARC)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음. 산토스 정부는 평화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, FARC와의 평화협정 체결로 치안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-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 (Pacific Alliance) 회원국 및 한국, 미국, EU 등 FTA 체결국들과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, 베네수엘라, 니카라과와는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 <sup>e</sup>	2017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4.9	4.4	3.1	2.2	2.7
재정수지 / GDP	-0.9	-1.8	-3.5	-2.9	-2.1
소비자물가상승률	2.0	2.9	5.0	7.6	4.1

자료: IMF.

#### □ 2%대 저성장 지속 전망

- 콜롬비아 경제는 수출의 75%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(원유, 석탄, 커피 등)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.
  - 콜롬비아는 2010~2014년 기간 동안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연평균 4.8%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  - IMF는 유가가 10달러 하락하는 경우 콜롬비아 경제성장률은 1%p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함.
- 2016년에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, 원유 생산량 축소, 민간소비 위축 및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2.2%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  - 콜롬비아 원유생산량은 2015년 1백만 배럴/일 수준이었으나,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12% 감소한 885천 배럴/일을 기록함.
-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, 인프라 투자 증가, 금융완화 기조로의 전환 등에 힘입어 전년 보다는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, 2% 중반대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 - 열악한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중인 160억 달러 규모 (총길이 7,000km, 50개 프로젝트) 도로건설 프로젝트인 4세대 도로사업(4G Program)의 지속적인 실시에 따라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됨.
  -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물가관리를 위해 2016년 7월 7.75%로 기준금리 인상(25bps)을 단행하였으나,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2016년 12월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인하(25bps 인하, 기준금리 7.5%)를 실시함.

□ 2017년 재정수지 개선 예상

- 산토스 정부는 2011년 재정준칙 수립 등을 통해 적정한 재정수지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바, 2014년까지는 양호한 재정상황을 유지\*하여 왔음.
  - \* 연도별 GDP 대비 재정수지: 2012년 0.1% → 2013년 -0.9% → 2014년 -1.8%
- 산토스 정부는 2011년 수립된 재정준칙에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014년 GDP의 2.3%, 2018년 1.9%, 2022년 1.0% 수준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함.
- 2015년 및 2016년에는 저유가 기조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,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 축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3% 내외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, 2017년에는 유가 상승, 세계개혁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  - 산토스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(16%→19%) 및 과세대상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세계개혁의 실시 효과로 2017년 GDP 대비 0.8%에 달하는 재정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.

□ 물가상승세 둔화 전망

- 산토스 정부는 3%±1%의 목표물가수준 설정을 통해 물가관리를 하고 있으며, 2014년까지 물가상승률은 2~3% 수준을 유지하여 목표물가수준을 달성하였음.
- 2015년 및 2016년에는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5.0%, 7.6%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, 2017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 등에 따라 4% 초반 수준으로 둔화되어 정부의 목표물가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원자재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

- 콜롬비아는 원자재(원유, 석탄, 니켈, 커피 등)가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.

- 원자재가 수출의 75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특히 원유는 수출의 4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

#### □ 교통인프라 미비

- 콜롬비아는 도로,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미비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-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(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-2017) 교통인프라 부문 세부 항목별 순위는 138개국 중 도로 120위, 철도 104위 등임.

### 나. 성장 잠재력

#### □ 부존자원 풍부

- 콜롬비아는 석탄 매장량 및 생산량 중남미 제1위,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은 각각 중남미 제5위, 제3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비교적 부존자원이 풍부하며, 국토의 절반이 기초탐사가 되어 있지 않아 개발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.
- 2015년 기준 석탄 매장량은 67억 톤(세계 제13위), 생산량은 56백만 톤(세계 제8위)임.
- 2015년 기준 원유 매장량은 23억 배럴(세계 제34위), 생산량은 1백만 배럴/일(세계 제19위)이며, 콜롬비아는 세계 제14위,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, 멕시코에 이어 제3위 원유 수출국(736천 배럴/일)임.
- 또한 니켈, 금, 구리, 철광석, 보크사이트, 에메랄드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
- 2015년 기준 니켈 매장량은 1.1백만 톤, 생산량은 4만 톤으로 매장량 및 생산량 중남미 제4위(세계 13위)를 차지하고 있음.
- 콜롬비아는 브라질, 베트남에 이어 세계 3위 커피 생산국(세계 커피 생산량의 7% 이상)으로 커피는 콜롬비아 수출의 7%를 차지하고 있음.

#### □ 비교적 큰 내수시장 보유

- 콜롬비아는 2016년 기준 인구가 49백만 명으로 중남미 제3위, GDP는 2,741억 달러로 중남미 제5위 규모로 비교적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.

-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(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-2017) 시장규모 부문에서 138개국 중 35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.

□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지속 추진

- 산토스 정부는 과거 Uribe 정부 시절(2002년~2010년)부터 이어 온 친시장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, 무역협정, 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여 투자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- 세계은행에 따르면, 콜롬비아의 2017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(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)는 190개국 중 53위,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(47위)에 이어 제2위를 기록하여 타 중남미 국가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.
- 특히, 자금조달(세계 제2위), 소액 투자자 보호(13위), 사업청산(33위) 부문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.
- 또한 최대 반군단체 FARC와의 평화협정 체결로 콜롬비아 치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, 산토스 정부의 OECD 가입 추진 (2013년부터 가입 추진중) 등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.

다. 정책성과

□ FARC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치안 개선 적극 추진

- 산토스 정부는 정부-반군간 52년 동안 지속된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좌익무장혁명군(FARC)과 평화협상을 진행하여 왔음.
- 2016년 11월 24일 FARC와 평화협정 개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하였고, 2016년 11월 30일 콜롬비아 의회가 평화협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으며,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평화협정 개정안을 합헌으로 판결하였음.
- 산토스 정부는 2016년 10월 2일 FARC와 평화협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, 근소한 차이(반대 50.21%, 찬성 49.78%)로 부결됨\*.
- \* FARC 반군에 대한 면책조항 및 2026년까지 선거와 무관하게 FARC측에 10석의 의석을 보장하는 내용 등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투표 부결의 주원인으로 작용함.
- 산토스 정부는 국민투표 부결 이후 야당 등 평화협정 반대파가 주장하는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FARC측과 재협상 하였고, 2016년 11월 15일 평화협정 개정안을 공포함.

-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평화협정에 대한 법적 절차는 완료된 상태로, FARC의 무장해제 등 평화협정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콜롬비아의 치안개선과 투자환경 향상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.
- FARC 반군은 2017년 1월부터 평화구역(전국 26개소)으로 이동을 시작하여, 2017년 2월 18일 약 6,900명 반군의 평화구역 집결이 완료되었으며, 반군은 무장해제 및 사회 재편입 교육 등을 받게 될 예정임.

□ 세제 개혁 실시

- 산토스 정부는 2016년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시행중으로, 정부의 세수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- 세제개혁은 부가가치세 인상(16%→19%), 과세대상자 확대, 탈세 및 조세회피 근절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.
- 산토스 정부는 세제개혁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가 2017년에는 GDP의 0.8%, 2018년 1.0%, 2020년 2.1%, 2022년에는 GDP의 2.7% 수준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 <sup>e</sup>	2017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-12,355	-19,489	-18,755	-14,311	-12,644
경 상 수 지 / G D P	-3.3	-5.1	-6.4	-5.2	-4.2
상 품 수 지	3,180	-4,640	-13,970	-11,112	-7,838
수 출	60,281	56,899	38,079	32,743	36,879
수 입	57,100	61,540	52,050	43,855	44,717
외 환 보 유 액	42,758	46,408	46,104	46,193	45,997
총 외 채 잔 액	97,752	113,911	122,418	130,888	137,976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5.7	30.1	41.9	47.7	45.8
D . S . R .	13.1	18.8	25.0	26.8	32.5

자료: IMF, EIU, OECD.

## □ 경상수지 적자 지속

- 콜롬비아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해외 기업들의 과실송금 등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규모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됨.
- 2010~2013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2014년부터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.
-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, 외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
- 최근 수년간 수출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5~6% 수준으로 확대되었음.
- 201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폐소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
## □ 비교적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

- 2015년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46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되기도 하였으나, 2016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.
- 콜롬비아는 기업환경 및 치안 개선에 따른 FDI 확대와 해외 차입 증가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-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2013년에는 5.8개월 수준에서 2016년에는 8.7개월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.
- 또한 콜롬비아는 IMF와 115억 달러 규모(2016년 외환보유액의 25% 수준)의 신축성 신용공여 계약(Flexible Credit Line)\* 체결을 통해 2018년 6월까지 유동성 위기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.

\* 크레딧라인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위기 예방 목적의 IMF의 금융수단

## □ 외채규모 증가추세 지속 예상

- 콜롬비아는 국채 발행 등 재정·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부채가 확대되고,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.



- 2016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47%를 상회하고 있으며, 2017년에도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산토스 정부는 2017년 30억 달러 규모의 외채도입을 추진중이며, 이중 25억 달러는 2017년 1월 채권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조달하였음.
- 2016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이 27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채증가에 따라 D.S.R.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Ⅲ. 정치 · 사회 동향

#### 1. 정치 안정

##### □ 안정적 국정 운영

- 2010년 집권한 중도우파 성향의 산토스 (Santos) 대통령이 2014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며, 상·하원 내 연정(국가연합사회당, 자유당, 급진변화당)을 통해 양원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음.
- 또한 2015년 10월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여당연합이 총 32개주 중 28개주에서 승리함에 따라 2018년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.
- 양원 다수석 확보를 바탕으로 2016년 세계개혁안 및 FARC와의 평화협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등 향후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다만, 평화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, 일부 야당이 반대입장을 여전히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, 향후에도 정치적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,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.

#### 2. 사회 안정 (소요/사태)

##### □ FARC와 평화협정 체결로 치안 개선 전망

- 산토스 정부는 치안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반군문제 해결을 정책 최우선순위로 추진한 결과 2016년 FARC와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제반 절차(의회 승인 및 헌재 합헌 판결)를 완료함.

- 반군의 무장해제 등 평화협정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콜롬비아의 치안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- 한편, 산토스 정부는 2017년 2월 7일 또 다른 좌익반군단체인 민족해방군(ELN)과 평화협상을 시작하였으며, FARC와의 평화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ELN과도 단기간에 평화협상을 완료하기를 기대하고 있음.
- 다만, ELN이 FARC 보다 강성인 점, 산토스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점, 2017년 2월 19일 수도 보고타 투우경기장 폭탄 테러사건의 배후로 ELN이 지목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원활한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3. 국제관계

#### □ 태평양동맹 회원국 및 FTA 체결국과 협력관계 지속

-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\* 회원국으로 멕시코, 페루, 칠레 등 타 회원국 및 한국, EU, 미국 등 FTA 체결국과는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.

\*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은 2012년 7월에 결성되었으며, 멕시코, 콜롬비아, 칠레, 페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임.

- 2012년 및 2015년 우리나라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방문하고, 2011년 산토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바 있으며, 2013년 우리나라-콜롬비아간 체결한 FTA가 2016년 7월에 발효되었음.

- 다만, 트럼프 정부의 미국 최우선주의 (America First) 및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해외문제 개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점 등을 고려시 콜롬비아에 대한 원조가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.

-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는 국가로, 최근 수년 간 매년 3~4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받아 왔으며, 미국은 마약거래 방지 및 대 테러 활동 등을 위해 2015년 콜롬비아 앞 3억 달러를 지원하였음.

#### □ 베네수엘라, 니카라과와는 갈등관계 지속

-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과거 국경 폐쇄 문제 및 최근 심각한 정치·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콜롬비아 유입 가능성 등으로 마찰을 지속하고 있음.

- 베네수엘라는 과거 국경보안 등을 이유로 2015년 8월 콜롬비아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콜롬비아인 1,500명을 추방한 바 있음. 2016년 8월 베네수엘라는 국경을 재개방하였으나, 다시 폐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- 한편, 최근에는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정치·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바, 향후 베네수엘라 국민이 위기 탈출구로 인접국인 콜롬비아로 대규모 유입되는 경우 콜롬비아는 치안불안 및 인도적 구제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o 니카라과와는 카리브해 연안 섬들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외채상환태도

#### □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

- o 콜롬비아는 1980년대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경험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해당 경험이 없고,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액 규모 감안시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- 2016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콜롬비아에 대한 승인금액은 69.1억 달러(단기 15.1억 달러, 중장기 54.0억 달러) 중 연체액은 13.2백만 달러에 불과함.

### 2. 국제시장평가

#### □ OECD, 4등급 유지

- o OECD는 2006년 콜롬비아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4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, 2016년 10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도 콜롬비아의 정치안정 및 치안개선, 경제성장 지속 등을 근거로 별다른 이견 없이 4등급으로 결정되었음.
- o 콜롬비아는 국제신용평가 3개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인 'BBB' 등급을 부여 받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- 다만,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Fitch는 2016년 7월 'Stable'에서 'Negative'로 하향조정된 바 있음.

□ 해외차입능력 비교적 양호

- 콜롬비아는 경상·재정수지 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제시장에서 순조롭게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바, 해외차입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.
- 콜롬비아는 2017년 1월 2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\*한 바 있으며, 발행금리도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감안시 투자자들은 콜롬비아 국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\* 25억 달러 중 10억 달러는 10년 만기, 만기수익률은 4%(쿠폰금리 3.9%)로, 15억 달러는 28년 만기, 만기수익률 5%(쿠폰금리 5%) 조건으로 발행됨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4등급 (2016.10)	4등급 (2015.10)
Moody's	Baa2 (2016. 5)	Baa2 (2014. 7)
Fitch	BBB (2016. 7)	BBB (2015.12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 수립: 1962년 3월 10일(북한과는 1988. 10. 24)
- 주요 협정: 문화협정(1976), 사증면제협정(1981), 과학기술협정(1992), 무역협정(1986),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(2010), 이중과세방지협약(2014), 자유무역협정(2016)
- 해외직접투자현황: 2016년 12월말 기준 51건, 326,232천 달러 (누적)
- 교역규모
  - 2013년 우리나라-콜롬비아간 체결된 FTA가 2016년 7월에 발효됨에 따라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(2004년), 페루(2011년)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 번째 FTA 체결국임.
  - 콜롬비아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제8위 수출대상국이자 제6위 수입대상국으로, 교역규모는 13억 달러 수준임.
  -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,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 등이며, 수입품은 석탄, 커피, 동제품 등임.

<표 4> 한·콜롬비아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주요 품목
수 출	1,342	1,509	1,129	853	자동차,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 등
수 입	207	608	323	433	석탄, 커피, 동제품 등
교역규모	1,549	2,117	1,452	1,286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## V. 종합 의견

- 콜롬비아는 2016년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.2%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,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,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보다는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, 2%대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6년 7%를 상회하였으나, 2017년에는 4% 초반 수준으로 둔화되어 정부의 목표물가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.
- 저유가 기조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%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, 2017년에는 유가 상승 및 세계개혁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- 최근 수년간 수출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5~6%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, 201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- 산토스 정부는 상·하원 내 연정을 통한 양원 다수석 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하고 있으며, 국정 최우선 과제였던 반군단체 FARC와의 평화협정 완료로 치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- OECD 4등급, 국제신용평가기관 BBB 수준의 신용도 유지, 외채상환태도 및 해외차입능력 등을 감안시 콜롬비아에 대한 국제시장의 평가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.

선임조사역 박대원 (☎02-6255-5705)

E-mail: parkdw@koreaexim.go.kr